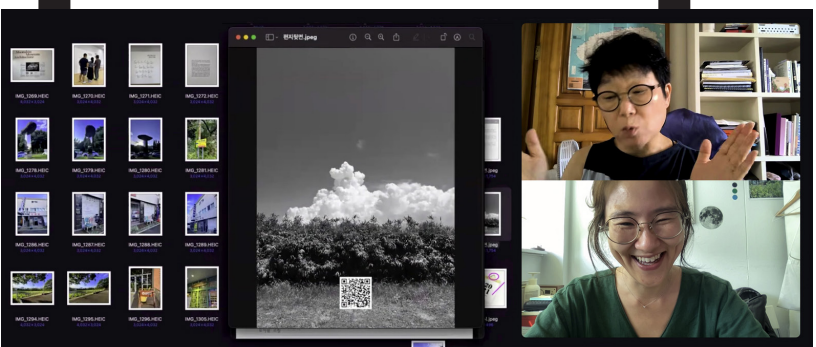


퍼즐 조각



제7회 청원조각비엔날레
THE 7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큰 사과가 소리없이
silent apple

짜깍 펼쳐지고

2024년 9월 15일, (여행사이자 출판사인 구름)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 의논하기 위해 제주에 거주하는 길선생님과 서울에 거주하는 구름의 화상 미팅 대화록. 창원조각비엔날레 개막 전 '사전 답사와 대화'의 성격을 띤다.

1 창원 방문기

구름

선생님, 우리 무슨 얘기 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창원조각비엔날레 여행을 위한 몇 가지 키워드 꾸러미를 구성해 보자는 얘기도 했죠.

- ¶ 저는 선생님 비엔날레 인터뷰¹ 읽고 나서 창원에 사전답사 다녀왔어요. 전시 사이트 네 군데를 혼자서 돌아보고, 어떤 기록을 발생시킬지 그야말로 결정을 했어요.
- ¶ 창원 돌아다니면서 무덤에 대한 생각을 좀 했거든요.

길선생님

장소 하나가 조개 무덤이라서 그런가요?

구름

그리고 보니 패총도 조개의 무덤이네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문신 미술관에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미술관인데, 흥미로운 게, 이 미술관을 문신 작가가 오랜 세월을 걸쳐 직접 지었다는 거예요. 미술관을 지을 생각으로 땅을 산 때로부터 따지면 한 30년에 이르는데, 작가가 바닥 타일을 하나하나 자르고 배열도 직접 했대요. 그 긴 세월을 걸쳐 결국 미술관을 지어냈다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 ¶ 그런데 스스로 지은 무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술관 정원에 문신 작가님 묘도 있어요. 실제 무덤이지요. 미술관을 시민에게 내주는 게 문신 작가님의 유지여서 지금은 시립미술관이 되었는데, 미술관 부지 저 안쪽으로 문신 작가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거주하셨던 집이 그 안에 있기도 하고... 지금도 아내 분이 살고 계시대요. 공과 사, 생과 사가 뒤섞인 묘한 곳이었어요.

길선생님

그러면 아내 분이 살아 계시세요?

구름

네. 미술관에서 자택이 보이는

유리 창문이 있는데, 거기 안내문이 있어요.

- ¶ 지금도 미술관 명예 관장님이자 문신 작가님 아내 분이 살고 계시다고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거리가 막 좁혀지고 와 닿으면서 이게 다 사실은 무덤이 아닐까, 생각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인터뷰 기사 다시 읽으면서 2016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출간물 『그런가요』²호를 오랜만에 읽은 거예요.² 그때 제가 박사라폼, 박현정님과 셋이 글을 썼는데, 그때 저희가 서울을 무덤으로 여기면서 서신 교환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무덤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잠깐 흥분했어요.
- ¶ 오늘은 제가 화면 공유로 창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요.
- ¶ 창원의 길을 찍은 사진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¹ <https://mediacityseoul.kr/2024/sub/sub0601.php?idx=36>

길선생님

잘 보여요.

구름

네, 창원은 길들이 이렇게 똑바르고 길고 넓게 되게 짝 뻗어 있어서 그것이 주는 감각이 있었어요.



- ¶ 패총은 이 짝 뻗은 공단 길 한복판에 있어요.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창고형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요.
- ¶ 뭔가 다른 시공간에 들어왔다는 감각이 들어요. 정문에서부터 이제 언덕이 쪽 시작되거든요. 쪽 오르막길이에요.
- ¶ 오르막 중간에 왼쪽으로 야철지가 있고, 언덕 끝에 유물 전시관이 있어요.



- ¶ 야철지는 조개 먹고 껍데기를 버린 터라 철을 주조하던 터를 복원해 놓은 곳인데, 두 곳 다 사이트가 너무 아름다워요.
- ¶ 그래서 정말 감독님이 이 장소를 발견한 걸로 다 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절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 ¶ 야철지 내부는 식물원처럼 유리 천장으로 된 통로가 나선형 오르막 구조로 나 있어요. 이 통로를 올라 코너를 돌면 이런 이제 조개 무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갑자기 탁 트인 시야가 나와요. 이게 야철지예요.



- ¶ 야철지를 나와서 다시 언덕을 오르다 보면 야철지 지붕이 보여요. 녹슨 철의 붉은 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멋지게 지은 건축물 처럼. 언덕 끝에는 유물 전시관이 있는데 저는 이 유물 전시관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보통 전시관은 인류사를 학술적인 용어로 소개하거나, 유물이 발견된 사실을 거대 담론으로 엮어 소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전시관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도구를 보여주는 단순한 맛이 참 좋더라고요. 별 기대 없이 들어갔다가 폭 빠져요. 그리고 전시관 건물 앞에서 내려다 보이는 창원 공단 전경이 또 되게

² http://archive.mediacityseoul.kr/2016/assets/content/s/%E%A%B7%B8%B9%9F%B0%B0%80%EC%9A%94-1%E1D%98%B8_160807_143215.pdf

좋아요.

길선생님

아니 여기서 한 번도 전시를 안 했다고요?

구름

네, 그렇대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성산 패총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굴되었는지 기본적인 사실부터 그 시대 패총인들의 삶을 소개한다고 그들의 요리 도구라든지 사냥 도구를 전시해 놔어요. 저는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걸 시루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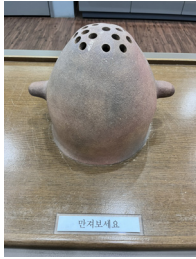
끝에 또 이런 불상이 있는 거예요.

길선생님

내려다 보는.

구름

네 근데 이 불상이 내려다보는 시야에 또 공단이 짝 펼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처님 머리에 이렇게 검처럼 검은 시멘트가 얹어져 있는데 옆에 팻말을 보면 보수한 흔적이에요. '누가 부처님 머리에 검 붙여 놔어!'하면서 한참 웃었어요.



이렇게 시루를 엮어놓고 '만져보세요' 라고 안내해 놔어요. 근데 이게 사람 뒤통수 아 보이면서 이 또한 너무 귀엽더라고요.

길선생님

그러니까요. 무슨 우주인 같아.

구름

네. 귀여워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내려오는 길에 아까 들렀던 아철지 쪽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뒷길로 정원 같은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봤는데, 세상에 여기가 하이лай트였어요. 이런 정말 알 수 없는 불상이 있는데, 이거 좀 보세요. 사람들이 목걸이도 걸어 주고 바구니에 시주도 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길선생님

절하고 그런 거죠. 아 다행이다. 그래도 바구니도 이쁜 거 갖다 놓고...

구름

이런 게 그냥 아름다워요. 여기가 되게 고요하고 웃기고 아름답고 다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끝까지 가보면 여기

부처님 앞으로 창원의 공단이 막힌 데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의미 있는 발견이다 싶었어요.



다음으로 여기는 문신 미술관이에요. 추산동 언덕배기에 작가가 어린 시절 살던 집터에 자기 미술관을 손수 지었어요. 마당에 들어서면 탁 트인 마산 앞바다랑 하얀색 미술관, 기하학적 패턴 타일로 장식된 바닥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문신 작가가 이 마산 앞바다를 너무 사랑했대요.

마산 앞바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지금은 거의 쓰기 어려운 거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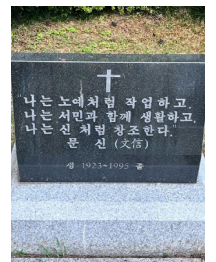
이게 합쳐져 가지고.

여기서 너무 반해서 이런 파노라마 영상을 몇 번이나 촬영했어요. 타일 바닥들을 작가가 손수 자르고

배열한 거고, 미술관 앞 비탈면에 자택이 있는데 지금도 사모님이 사시는 곳일 거예요.



문신미술관으로 들어가면, 벌드는 자리에 작가의 아버지가 작가에게 하셨던 말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어요. "신이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문신이 사랑한 마산에서 정》이라는 전시가 열려요. 작가와 소통했던 분들의 그림을 전시 해 놔어요. 그것도 그냥 저는 마음이 좋더라고요. 정이라니...



미술관 뒤쪽으로는 산길까지 다 정비가 되어 있어요.

마당을 정비하며 거뒀던 돌로 인공 폭포랑 옹벽을 지었는데, 그 옹벽으로 산길을 정비한 거예요. 돌계단 따라 언덕을 올라가면 미술관의 가장 높고 비밀스러운 정원이예요. 안쪽에 문신 작가의 묘가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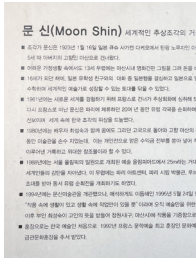
길선생님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박물관은 작품의 무덤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사람과 작품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구름

맞아요. 팻말에 이 추산동 언덕배기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작가가 프랑스 시절부터 염원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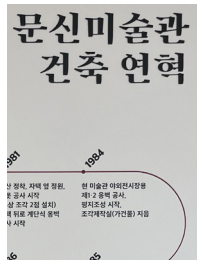
것이었다고 써 있어요.



작가의 아내분인 최성숙 명예판장이 살고 있다고 쓰였어요.

길선생님

유럽 같아요.



보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런데 바다로 향한 창을 요즘처럼 통창으로 터놓지 않고 그쪽으로 벽을 쳐 놓고 작은 창문으로만 바다를 볼 수 있게 해 놨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이 아파트는 지은지 좀 오래된 거고 요즘에나 이 바다뷰가 멋있는 거지, 사실 물이라는 게 옛날에는 좀 우울하거나 재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길선생님

어떡해, 어머니가 일본인이셨대요. 말도 안 돼!

구름

그러니까요. 노동자의 자녀였다니. 저는 사실 그 시절에 유학도 가시고 했으니 워낙 사는 집 자녀였다 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혈혈단신 자기 힘으로 성공한 작가였더라고요.

길선생님

프랑스 건너간 것부터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유학생 자녀분이 아니었구나.

작품 자체도 굉장히 견고해서 좀 딱딱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선입견이네.

여기는 유료 미술관이죠?

구름

네, 근데 입장료가 엄청 저렴해요. 오백 원이에요.

길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유지하시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구름

아, 왜냐하면 이제 시립이에요.

길선생님

아, 시립이 됐군요.

구름

네. 정식 명칭이 창원시립문신미술관이에요. 원형미술관에 이 문신미술관 건축의 기록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형 전시장 옆으로 유리문이 있는데 추산동 문신 자택 이렇게 해갓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곳이 생전에 살았던 곳이고 지금도

구름

건축 과정이 잘 설명돼 있어요. 연혁을 보니까 1938년에 이 부지를 구입한 거네요.

2,500평을. 그리고 1948년에 기초 공사를 시작하셨고...

길선생님

아니 이걸 믿을 수가 없네...

구름

평생에 걸친 과업이었던 거죠. 부지를 구입해 놓고 한 20년간 프랑스 생활 하시다가 1980년대에 다시 돌아와서 마산 정착하면서 1984년부터 미술관 건물을 지은 거죠.

중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연되다가 1994년에야 개관했네요. 그리고 1년 후인 95년에 돌아가시고.

2004년에 마산시립문신미술관이 되고, 2010년에 시에서 건립한 원형미술관과 합쳐서 창원시 통합으로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술관 부지 안에 건물마다 태생이 다른 거죠. 문신 작가가 직접 지은 미술관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미술관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원형미술관은 원래는 시립으로 운영되다가 2003년 경에야 통합이 되면서 전체가 다 창원시립문신미술관이 된 것이네요.

미술관 옆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장소가 근사하다 싶으니까, 제가 벤치에 앉아서 또 그 아파트 시세를 찾아 봤어요, 네이버 부동산 앱을 열어서...

길선생님

저도 궁금해요.

이런 데 살고 싶어요.

구름

거의 서울의 한 10년 전 전세가인데, 그보다 제가 놀랐던 건, 여기가 바다 뷰가 멋진 곳이지 않아요.

심지어 이 아파트는 그걸 다 내려다

길선생님

맞아요.

지금은 반대가 됐죠.

습기가 차니까요. 요새는 다들 제습기 쓰지만 그때만 해도 제습기가 있었나요. 그런 이유도 큰 거 같아요.

구름

그런 게 저는 새삼 또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구름

이제 마지막 여정이예요. 동남 운동장을 찾아서. 동남 운동장 앞에 '백제 브라운핸즈 커피'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비엔날레 장소와 브라운 핸드 카페의 상관 관계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산 비엔날레에서도 이 카페를 마주쳤거든요. 이 건물이 □자 구조의 큰 규모의 단지인데, 그 뒤로 동남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일부로 찾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공터예요. 이렇게 테크와 테이블이 있고, 구름대가 남아 있어요.



해 질 녘에 도착해서인지 운치가 있더라고요.

길선생님

이거 너무 잘 찍으셨어요.

해질녘이니까 또 이런 빛이 나오는구나.

구름

여기까지 전시 부지 답사였고, 이틀날 아침에 성산아트홀 건너편 용지호수공원엘 갔어요. 현시원 님이 호수에 예전 비엔날레 조각들이 있으니 보고 가라 해서 제가 이 호수를 한 바퀴 돌았던

거예요.

- ¶ 호수 중간에 이런 잔디 공터가 있어요.
- ¶ 여기에, 예전에 했던 전시 조각들이 하나씩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게 뭐랄까, 되게 익숙한 조각 비엔날레의 전시물 형상일 거 같아요.
- ¶ 그래서 일단 다 기록해 봤어요. 팻말 보니까 2009년, 2010년 작업이네요.
- ¶ 2013년도 있고... 제작년도가 다 다른 걸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매 회차마다 했던 걸 하나씩 여기서다 갖다 놓은 건가 봐요.

길선생님

처음부터 여기에 자리 잡은 걸까요, 아니면 끝나고 하나씩 갖다 놓은 걸까요?³

2 그랜드 투어(Grandtour)와 와유(臥遊)

길선생님

우리가 말하면서 키워드를 도출할 수도 있고, 생각해 놓은 것을 밝히면서 좀 더 추가해 갈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랜드 투어’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를 찾다가 키워드가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 옛날부터 제가 생각해 놓은 것들이 구름 씨랑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그랜드 투어였어요. 18세기 유럽 사람들이 전시 관람이나 공부를 위해서 가는 유럽 여행, 그게 너무 재밌는데요.

- ¶ 18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웨일스의 여성 작가인 헤스터 트레일 피오찌,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메리 울스턴크래프트였습니다). 그 사람이 책이 재미있다고 해서 읽다가 본 건데, 이후에 그랜드 투어를 검색해 보니까 그 사람 말고도 투어 다녀와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출판이 유행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 ¶ 네 그러니까 트래블 로그(travel log)라고 하죠, 여행 일지.

구름

저는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제일 기본적인 형식인 것 같기는 해요.

길선생님

그래요. 혹시 이 책 읽어 보셨나요?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라는 책이요.⁴



구름

오, 아니요. 우리가 봐야 할 책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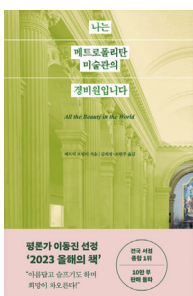
길선생님

저번에 얼핏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글썽 얼마 전에 한국에도 출간됐어요.

- ¶ 그래서 읽어 봤는데 이거는 진짜 스토리텔링이에요.
- ¶ 대단하더라고요. 큰 기대를 안 하고 읽은 게 미안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 ¶ 보지 못하는 분한테 어떻게 예술을 설명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별 것 아닌 이야기같이 들리겠지만, 누가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역시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술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보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진보적이지도 않은 감식안을 갖추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 ¶ 저는 그런 게 참 좋았어요. 너무 장애 예술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 ¶ 그렇다고 예술이 너무 낭만적이고 좋아서 이런 걸 봐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재미가 없는데, 그 둘 다 아닌 거예요.

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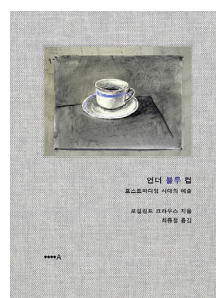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 또한 미술관에서의 경험을 써 내려간 책이죠.⁵



5 페트리 브링리,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김희정, 조현주 옮김(피추:웅진지식하우스:웅진씽크빅, 2023).

길선생님

예, 그 책도 얘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오디오 북으로 그 책을 계속 들으면서 잤거든요. 책을 귀로 들은 경험 때문에도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두 책이 아마 비슷한 시점에 나왔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언더 블루 컵』⁶ 이 책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책방에서 며칠 전에 이 책을 보니까, 여기에 로절린드 크라우스가 도큐멘타 전시를 보러 카셀을 가는 방문기가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이 사람은 비평가지만, 하여튼 그랜드 투어인 거죠.



- ¶ 그래서 이 책도 어쨌든 목록에 들어갈 수 있고 좀 재미있게 다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구름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이 책 소개 페이지를 보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자기 이론인데요, 이것도 우리 언젠가 이야기 나눈 적 있지 않나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이론화하는 것이요. 『언더 블루 컵』의 책 소개 페이지에서 눈에 드는 문장이 “당시 저는 뇌 손상에서 막 회복하던 중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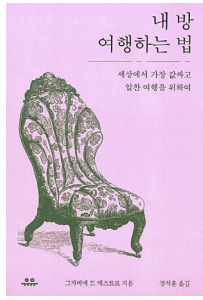
- ¶ 제 기억 저 아래로 흐르는 사유를 불러내고자 했고...” 딱 이거네요.
- ¶ 여행에서부터 시작되는 자기의 병으로부터의 치유와 여행의 이야기일 거라고 기대하게 되네요.
- ¶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의 상황이 묻어나는 것이요.

길선생님

네 맞아요. 크라우스 글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책을 읽기도 편할 것 같아요.

- ¶ 아니, 이분이 심지어 『현대 조각의 흐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6 로절린드 크라우스, 『언더 블루 컵: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예술』, 최정현 옮김(서울: 현실문화사, 2023).



구름
그렇네. 공부할 게 너무 많네요.

길선생님
예. 그래서 이 분이 조각을 어떻게 썼을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미디어의 조건’⁷ 이런 이론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그냥 작품 하나를 어떻게 봤는지 쓴 글이 좀 궁금해요.

구름
그랜드 투어에 관한 책도 혹시 더 있을까요? 원서만 있겠죠?

길선생님
그렇죠. 그래도 왠지 찾으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 제가 어딘가에 따로 찾아봐야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책이 나오잖아요, 벌써 *Ladies of the grand tour*.

구름
너무 좋다. 심지어 레이디예요!

길선생님
예예. 원래는 평민들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귀족 자제분들 중에서도 소년들이 가는 거였는데, 하여튼 레이디들도 갔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던 경험을 책으로 쓴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본인이 쓴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남이 기록한 글도 있지만 본인이 쓴 게 더 관심이 가요.

☞ 그리고 와유라고 하잖아요.

☞ 영어로는 암체어 트래블러(armchair traveler).

구름
오 선생님, 제가 방금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내 방 여행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⁸ 일종의 공상 문학인데, 주택 감금령을 받은 귀족이 집안을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이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따분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사 데리고 돈키호테처럼 집 안에서 여행을 다니는 것에 관한 책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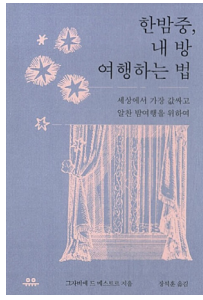
☞ 암체어는 뭐예요?

☞ 그것도 왠지 약간 집에서 하는 여행일 것 같은데.

길선생님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앉아서 상상 여행하는 거요. 금강산 그림 같은 걸 놓고. 제가 번역할 때 와유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찾아보니까 이게 암체어 트레블러라고 하더라고요.

☞ 『내 방 여행하는 법』 어머 어떡해 이거 재미있다.

구름
목차만 봐도 재밌어요. ‘내방 여행법의 좋은 점’부터, ‘의자’, ‘침대’, 이렇게 집의 요소들에 관해 말하다가 ‘형이상학’, ‘영혼’ 이렇게 철학적 이야기로 흘러요. 저자가 쓴 책이 한 권 더 있거든요. 『한밤중, 내 방 여행하는 법』⁹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제가 창원 사진당사 사진 보여드리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방구석 여행기인 거잖아요. 유람기네.



길선생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유를 한 거죠.

구름
우리가 서로한테 이야기꾼이 되어 주고, 그걸 잘 그냥 정리해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상 여행의 현장성이 생기겠어요.

3 “짜깁혀지고”

길선생님
오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단어가 구름 씨 입에서 나왔어요. 참 반갑네요.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영화 장면으로 예를 들 수는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어를 딱 말씀하시는 순간, 그렇지 그 단어를 아예 가져가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 뭐냐면 그거예요. “짜깁혀지고”. 아까 그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여주면서 계속 “여기에 이렇게 짜깁혀진다”라는 말을 오늘 많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름
“짜깁혀지고” 라니, 『그런가요』 같은 느낌인데요?

길선생님
“짜깁혀지고” 때문에 사실은 걷는 거고,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 그러지 않으면 사진만 봐도 되는데 내가 모르는 곳에서 걸다가 그제 눈앞에서 이렇게, 360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어요, 180도에서 한 220도 정도 작품이나 풍경이 펼쳐지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 살아있는 기쁨 중에 하나가 그것일 것 같아요. 그 “짜깁혀지고”가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영화로 치면은 『비정성시』에 그런 장면이 있고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제주도 안덕면에서거든요.

☞ 그 영화랑 똑같은 경험. 진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짜깁혀지는 시야.

구름
안덕면은 어떤 경험이에요?

길선생님
장선우 감독님이 안덕면에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찾아가는데, 처음 찾아가갈 때는 거의 허우 샤오시엔의 『비정성시』에 나오는 장면처럼 풍경이 갑자기 짜깁혀지는 거예요. 시야를 막는 것들이 있다가 갑자기 펼쳐지는 거거든요.

☞ 어떻게 보면 미술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곳 같아요.

☞ 그러니까 코너를 돌 때나 어느 방으로 들어갈 때요. 사실 저는 미술관 건축이라는 게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구름
카페를 찾아가실 때 짜깁혀진다 는 걸 느낀 게, 그 길이 주는 경험 덕분인 거죠?

길선생님
문신미술관 얘기하신 거랑 마찬가지로인 거예요.

☞ 문신 선생님이 마산 앞바다를 얘기할 때 그런 느낌으로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 “짜깁 펼쳐지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냐 하면 앞에 그냥 항상 360도로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시야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갑자기 펼쳐지는 풍경이죠. 그게 왜 생기냐면, 언덕이 있기 때문이에요. 코너 같은 언덕이요. 언덕면도 그렇고 『비정성시』도 그렇고 언덕을 넘어가면서 펼쳐지는 풍경이에요.

¶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나면, 그 길이 너무 좋아서 그다음에 다른 분을 모시고 거기를 가는데 길이 다르더라고요.

¶ 그래서 언덕이 없이 평평한 길로 거기에 도착했어요.

¶ 그러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언덕이 없이 그냥 가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구름

거기에 보태고 싶은 게, 저희 제주에서 식사했던 ‘다소니’라는 식당에도 근처에 언덕 아래 내창이 또 짜깁 펼쳐져 있잖아요.

¶ 높이와 경사가 중요한 거 같아요.



길선생님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구름

그렇네요, 선생님, 사실 문신미술관 앞에 마산 앞바다도 짜깁 펼쳐지지만 성산 패총의 그 돌부처 앞에도 공업 단지가 짜깁 펼쳐지죠.

길선생님

그러니까요. 마산 앞바다도 그렇고 언덕도 결국은 짜깁 펼쳐진 상황인데, 경사라는 말을 하셨지요. 저는 각도로 치면은 한 140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40도와 나머지 140도.

구름

그렇네. 경사에 집중하면 40도가 되고 짜깁 펼쳐지는 거에 집중하면 140도가 되는 거네요.

길선생님

걸을 때도 항상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소리가 있는 설치 작업에서도 느껴지고.

¶ 조각을 볼 때 나는 어땠나를 돌이켜 보게 돼요. 추천할 책이랑 여러가지 생각해 두긴 했지만 이 얘기를 어떻게 이룰까 했는데 “짜깁 펼쳐지고” 라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이미 제 앞에 짜깁 펼쳐진 거죠. 제가 경험하듯이. 그냥 장소 사진만 보여줬으면 저도 그 느낌을

¶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거를 그냥 오늘 다 실현을 하셨어요.

구름

네 선생님, 전시를 볼 수 없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었지요.

길선생님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 1990년 중반의 초기 웹사이트는 굉장히 간단했잖아요.

¶ 요즘은 너무 복잡해요. 장애인 접근성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 보면 현란하게 만들지 않고 소리로 설명해주잖아요.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캡션이요.

¶ 미술관들이 엑스(트위터)에 작품 설명을 올리는데, 실은 그림 설명과 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설명은 달라요.

¶ 저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이미지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창원에 못 오는 사람,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 설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스토리텔링 방법도 있고, 기사를 쓰거나 비평을 쓸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게 이미지 설명이라는 거죠.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름

작품의 개념이나 메시지, 미술사적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무엇이 보이는지를 묘사해 주는 것이죠?

길선생님

그렇죠. 무엇이 보이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느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건조하게, 중립적으로 묘사해서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구름

좋은데요.

길선생님

아우 그러니까요.

구름

선생님이랑 얘기를 자주 해야겠어요!

길선생님

아 저도 속으로는 막 이렇게 끓여놓고 있었죠. 이게 잘 나와야 할텐데, 역시 저는 좀 기다리는 편인 거예요.

¶ 예, 기다렸더니 자연스럽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구름

선생님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잘 기억했다가 뭘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창원에서 만나요.

길선생님

길예경은 번역과 교정과 편집 일을 한다. 실험 미술을 전공했고 여러 미술 및 디자인 잡지에서 (객원) 기자 및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최근 공동으로 번역한 책은 『문예 비창작: 디지털 환경에서 언어 다루기』(워크룸)이다.

구름

우아름은 글을 쓰고 책을 만든다. 문학과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큐레토리얼과 에디토리얼을 연결하는 실천에 관심이 있다. 최근 지은 책은 『1보다 크거나 작거나』(<http://almost-one.com/>)다.